



# 계열화 사업 발전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도입되어야...

◇ 취재 / 김종준 기자  
(jjun@poultry.or.kr)

## 1. 계열농가 참여율 증가세

계열화 사업은 최근에 들어 꾸준히 발전하면서 육계 사육 농가라면 한번쯤 계약사육을 해본 경험이 있다고 조사되고 있다. 현재 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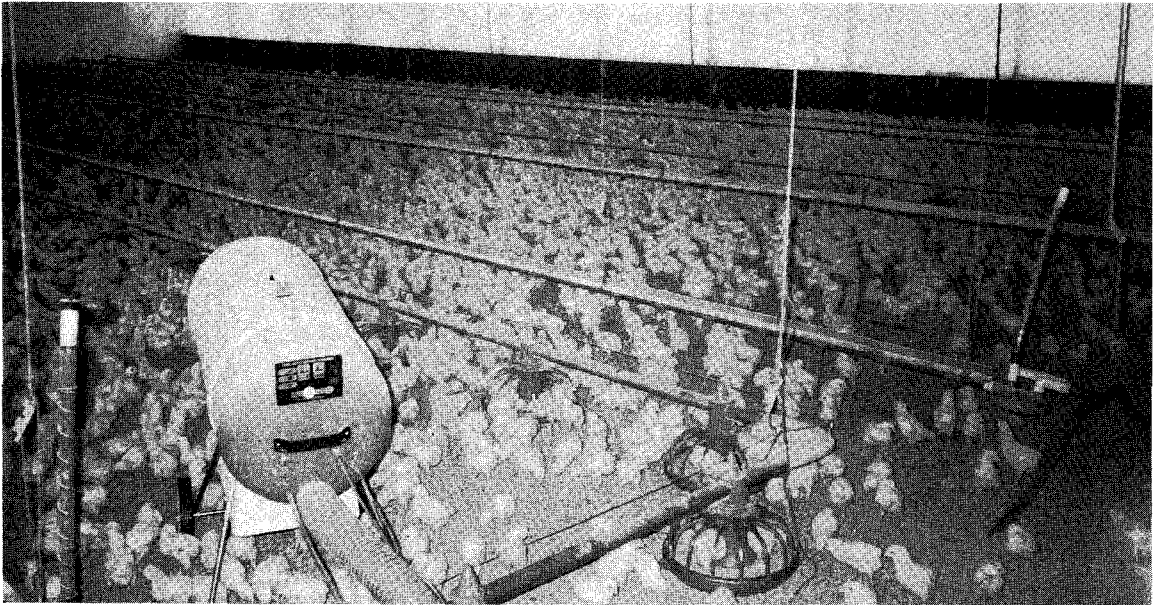
나라 계열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는 마니커, 체리부로, 농협 계육가공분사, 동우, 해표 푸드서비스, TS해마로식품, 화인코리아, 성화식품, 우인산업, 전북양계축협, 한일농원, 키토랑, 육성코리아, 하림, 한강산업, 한라 등이 있다. 지역적으로 보면 경기도에는 마니커, TS해마로식품, 한일농원, 해표푸드서비스, 우인산업, 충청도에는 체리부로, 농협계육가공분사, 전라도에는 하림, 화인코리아, 동우, 경상도에는 하림, 키토랑, 체리부로, 제주도에는 한라의 계약사육 비율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계약 사육 형태를 취하고 있는 육계유통업자들이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이런 계열화 사업 추세로 본다면 계약사육 비율은 계열사 70%, 유사 계열사 20%로 총 90%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 육계농가들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표1. 계열농가 현황

계열사	거래 농가수	비고
하림	600	가. 2002년 10월 말 기준 계열사육을 하고 있는 업체와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중복농가를 포함한 것임.  나. 국내 전업 육계농가를 2,500호로 가정하면 계열농가수는 약 70% 수준임.
마니커	200	
농협계육가공분사	140	
체리부로	140	
TS해마로식품	120	
동우	100	
성화식품	100	
화인코리아	100	
한일농원	90	
해표푸드서비스	80	
전북양계축협	50	
우인산업	50	
키토랑	40	
한강산업	40	
육성코리아	30	
한라	25	
계	1,770	

## 2. 상대평가 보다 절대 평가에 의존

농가와 계열사는 1년 단위로 육계 계열생산 계약서를 작성한다. 계약서에 의하여 계열사



는 병아리, 사료를 공급하며, 출하까지 전담하고 농가는 단지 사육만 전담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계약서 작성시 계열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연간 사육 회전수는 5회전을 기준하되 여름철 삼계사육농가의 경우 연 7회전까지 하고 있다. 육계 대금을 정산할 때 농가는 생계 구매대금, 사육수수료, 연료비, 상차비, 연금 적립금(지급하지 않는 계열사도 있음)을 포함한 금액에서 사료비와 병아리 대금 차액을 받게 된다.

그러나 정산 방식은 상대평가제와 절대평가제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상대평가제는 현재 1개 계열사만 시행하고 있고, 나머지 계열사는 절대평가제를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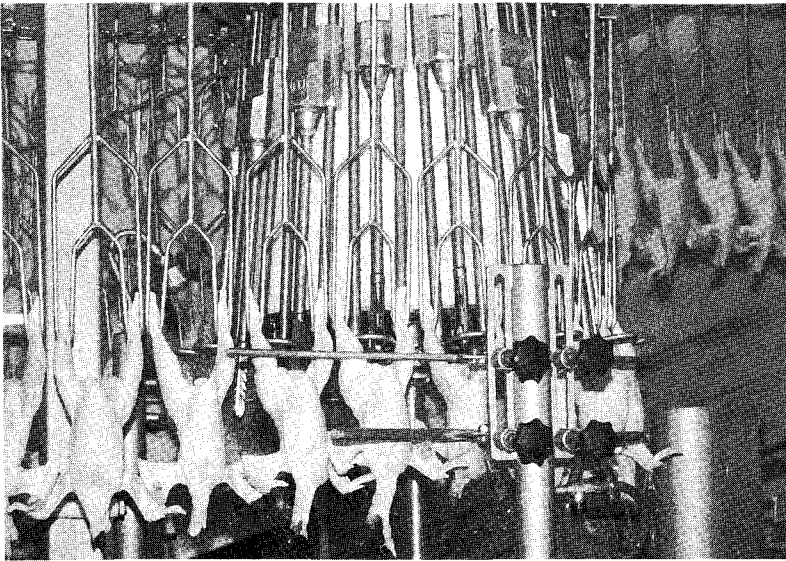
### 3. 계약농가 연간 순익은 마이너스?

육계농가에 의하면 계약농가가 정산시 절대

평가나 상대평가든 사육수수료, 연료비 약값, 성과급을 포함하여 계열사로부터 받는 금액은 연평균 수당 350-420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표2는 지난 8월 중반부터 10월 초반까지 사육한 모계열사 계약 농가들의 정산자료로 이 지역 농가들의 연중 최고 성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농가들의 생산지수 243이상

표2. 계열농가 사육성적

순번	입추수수	출하수수	일수	육성률	생산지수	정산수수료
1	34,700	34,890	36	100.55	289	417
2	26,000	25,820	34	99.31	286	380
3	31,000	30,940	36	99.81	285	406
4	59,500	58,500	35	98.32	268	347
5	22,000	22,040	33	100.18	265	299
6	26,900	26,576	37	98.80	245	302
7	19,600	19,950	36	101.79	243	301
8	46,400	44,750	39	96.44	219	264
9	33,300	29,520	35	87.84	211	185
10	13,000	12,120	42	93.23	153	41
11	50,500	31,480	50	62.34	72	-70



참조). 이 농가의 연중 수익은 4,050만원이고 비용은 연중 4인 가족 최저 생계비, 계사 감가상각비, 계사신축 대출금을 계상한 결과 158만원이 적자가 발생하였다. 만약 수익 부분에서 회전수가 1회전을 못했거나, 생계비로 월 99만원 이상 지출했을 경우 농가의 적자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사육수수료가 수당 140원으로 10년전 수준을

되어야 300원 이상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반면에 생산지수가 200이하인 농가들은 연료비, 상차비, 성과급은 고사하고 사육비 140원 조차 확보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으로 나타났다.

표2 정산표를 참고로 하여 3만수를 출하한 농가가 연료비를 가감하고 정산 수수료 270원을 받았다고 가정하고 1년에 5회전을 한 것으로 1년의 손익계산서를 계상하여 보았다(표3

계속 이어 오고 있어 물가 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선진국에 비해 수당 사육수수료는 수치상 높지만 출하체중, 출하율, 회전수 등을 감안할 경우 농가소득은 제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 4. 계열농가 해결과제

##### 가) 육계계열생산 위탁표준계약서 도입

최근 계약 농가 사육수가 급증하면서 계열사와 농가간의 계약서가 가장 주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병아리와 사료 품질 문제, 출하 시기 및 기간, 사육회전을 문제가 가장 큰 시비로 남아 있는 상태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한양계협회에서 육계 계열생산 위탁표준계약서를 제작하여 배포하여 계열사와 농가 계약시 상호 불만이 없도록 기준을 마련하였는데 일부 내용만 참조할 뿐이고, 대부분 계열사는 아직 계약시기가 아니거나 검토조차 하지 않는

표3. 계열농가 손익조사표

항목	수익	비용
내용	4,050만원 (3만수×270원/수×5회전)	4,208만원 1,188만원/년(99만원×12월) 1,820만원/년(1억 대출금리 4%) 1,200만원/년(계사감가상각비)
자료	가. 3만수 규모 나. 정산수수료 270원 (연료비30원/kg가감) 다. 회전을 5회전 라. 닭값 860원/kg 마. 생산지수: 236 바. 병아리 320원 사. 사료단가 291원/kg	가. 4인가구 기준 최저 생계비 99만원 나. 대출금: 1억원(5년거치10년분할, 금리 4%), 다. 계사감가상각비: 계사신축 평당20만원, 3만수 기준 평당 사육수 50수 기준하면 1억 2천만원 투자되고 사용년수는 10년

것으로 나타나 육계계열생산 위탁표준계약서 적용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다.

### 나) 사육 노동자로 전락?

올해 들어 병아리가격이 급등하고 육계 출하가격이 300원/kg까지 추락하면서 육계업에 아예 중단하거나 임시 휴업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틈을 이용하여 계열농가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또한 계열사들의 지원(정부자금 지원) 하에 계사 신축이 이루어졌는데 주로 무창계사가 형태로 1동당 3만수이상 규모 비율이 높았다.

근래 몇 년간 육계업을 새로 시작하는 농가들은 생산만 잘 한다면 단기간에 몇 천 만원을 벌 수 있다는 심리를 엿볼 수 있었다. 이런 농가들의 평당 사육수수는 60~80수로 기존의 평당 50수보다 10~30수가 많은 편이다. 육계를 사육하는 농가이기 때문에 신축계사에 청정지역이어서 사육성적도 좋고, 계열사도 농가 확보차원에서 병아리와 사료 품질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 하지만 사육 년수가 길어지면서 질병이 한두 번 발생하게 되면 이에 따른 농가 수익은 초년도 수익과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저하되고 질병 발생수가 많아지고, 결국 농가수익은 줄어들고 연수익을 계상해보면 보통 셀러리맨 수준도 안되는 육계 사육 노동자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 다) 회전을 유지되어야

육계사육 회전을 감안하여 계열농가들은 육계 시세는 별 관심이 없다. 단지 일년에 몇 번 사육할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통상 5회전하는 농가들은 한번 출하 후 40~50일을 사육하고 있고, 6회전 농가는 25~30일, 7회전 농가는 여름철에 출하 후 1주일이면 입추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회전은 병아리 공급추이에 따라 차이가 많은데 병아리 공급이 풍부하면 겨울철의 경우 2주안에 입식이 가능하고, 병아리가 부족하면 30~40일로 미루어지거나 심지어는 50일까지 늦어지고 있다. 육계농가들은 5회전 이상 회전을 유지해야 하므로 계열사가 병아리 물량을 제때에 공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 라)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시급

계열사와 계약농가와 의 분쟁 소지가 가장 많은 것은 병아리 품질, 사료품질, 출하과정 중량, 병아리 입추 시기조정이다.

병아리 품질 분쟁은 근래에 가금티푸스에 수직 감염된 병아리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 없이 공급하고 있고, 분명히 수직 감염 질병임에도 출하 후 1주일 넘어서 발생한 경우 농가가 전부 책임져야 하는 실정이다. 둘째는 사료 품질이 저하되어 생산성이 저하되었는데 출하 후 정산시 고가의 사료비를 책정하는 사례가 있고, 농가에서는 사료품질을 검증할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여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출하시 농장 출하 중량과 도계장 도착 중량 차이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넷째 출하기간을 길게 두어 출하 중량이 떨어지고 사육성적이 하락하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농가들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정부 차원에서 설치되어 육계 사육시 분쟁에 대한 공정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계**